

허위 독특성 편향의 문화차:

문화와 자기고양에 대한 재고*

박 혜 경†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최근 일부 문화심리학 연구들은 동아시아인들이 자기고양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에 반대하며, 이들이 적어도 자신에게 적절하고 중요한 특질들에 관해서는 자기고양 편향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인들(혹은 집단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서구인들(혹은 개인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 간의 자기고양 편향의 차이가 특질 영역에 따라 다른 수준으로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더 나아가 독립적, 혹은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을 점화하는 것이 자기고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였다. 자기고양 경향은 허위 독특성 편향으로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허위 독특성 편향은 한국인들보다 미국인들이 강하게 보이며, 독립성 영역보다 상호의존성 영역에서 더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독립성 영역에서와는 달리 상호의존성 영역에서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도 집단주의 성향이 약한 사람들만큼의 허위 독특성 편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개인의 집단주의 성향은 특질 중요도를 매개로 하여 상호의존성에 관한 허위 독특성 편향에 영향을 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문화 성향과 점화의 방향이 일치할 때 허위 독특성 편향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허위 독특성 편향, 문화, 자기고양, 문화 점화

과거 일련의 비교문화 연구들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고양 동기(self-enhancing motivation)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시사하는 결과들을 보고하였다(Heine, Kitayama, Lehman, Takata, Ide, Leung et al., 2001; Heine & Lehman, 1999; Heine, Lehman, Markus, & Kitayama, 1999; Heine, Takata, & Lehman, 2000). 예컨대, Heine 등(2000)은, 캐나다인들은 자신이 평균적인 동료 학생보다 열등한 수행을 보였다고 인정하기를 꺼려했으나 일본인들은 오히려 자신이 평균적인 동료 학생보다 우월한 수행을 보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꺼려했음을 제시하며, 자기고양 동기는 서구인들의 특징인 반면 자기비관, 혹은 자기향상 동기는 동양인들의 특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후 연구들은 동아시아인들이 자기고양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에 반대하며, 이들이 적어도 자신에게 적절하고 중요한 특질이나 영역에서는 자기고양 편향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Kurman, 2001; Sedikides, Gaertner, & Toguchi, 2003). 이 논쟁은 최근까지 문화심리학 내에서 중요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Brown, 2003과 Heine & Hamamura, 참

† 교신저자: 박혜경,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136-74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 3가 249-1
전화: 02-920-7303, Email: hpark@sungshin.ac.kr

고). 본 연구의 주목적은 특질 중요도를 고려하여 한국인들(혹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과 미국인들(혹은 집단주의 성향이 약한 사람들)의 자기고양 편향을 비교함으로써 위에 기술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경험적 증거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문화 접화가 자기고양 편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데 있다.

허위 독특성 편향

본 연구에서 자기고양 경향은 허위 독특성 편향(false-uniqueness bias; FUB), 즉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특질들과 관련된 자신의 독특성을 과대 지각하는 경향으로 측정되었다. 사회비교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성공적인 수행 결과, 혹은 도덕적인 행동이 실제로 그러한 것보다 드물다고 추정한다(Goethals, Messick, & Allison, 1991).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 좌석벨트를 착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처럼 좌석벨트를 착용하는 사람들의 수를 실제보다 과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ls, Wan, & Sanders, 1988). 즉, 사람들은 자신이 갖춘 미덕이 실제로 그러한 것보다 훨씬 더 예외적이며 자신에게만 고유한 것이라고 여기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허위 독특성 편향은 개인주의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특징적으로 보이는 편향인 것으로 여겨져 왔다(Markus & Kitayama, 1991a; Heine & Lehman, 1997). 그러나 조궁호(2002)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 내적 비교 연구를 통하여 개인주의 사회에서 중요시되는 ‘능력’과 ‘개체성’에서는 개인중심성향자들이 허위 독특성 편향을 강하게 보이고, 반대로 집단주의 사회에서 중요시되는 ‘배려성’에서는 집단중심성향자들이 허위 독특성 편향을 강하게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¹⁾ 이처럼 개인의 문화 성향(즉, 상대적으로 개인중심적이거나 집단중심적인 정도)과 특질 영역에 따라 허위 독특성 편향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결과에 기초하여 조궁호는 ‘허위

독특성 편향은 어느 문화에서나, 해당 문화의 문화적 명제와 일치하는 특성을 기준으로 사회비교 판단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조궁호의 연구는 한 문화 내에서 개인의 문화 성향과 특질 영역에 따른 차이만을 다루었으므로, 실제로 서로 다른 문화 맥락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특질 영역에서 허위 독특성 편향을 더욱 강하게 보이는지 직접적으로 검증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더불어, 최근 일련의 문화심리학 연구들은 문화 간의 차이가 반드시 문화 내 개인들 간의 차이에 대응되거나(Na, Grossmann, Varnum, Kitayama, Gonzalez, & Nisbett, 2010), 문화 내 개인들 사이의 차이가 반드시 문화 집단들, 혹은 문화 맥락들 간의 차이와 상응하지는 않음을 보인 바 있다(Kitayama, Park, Sevincer, Karasawa, & Uskul, 2009). 이는 문화 내적 비교 연구가 문화 간 비교 연구와 항상 동일한 결과를 산출하지는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는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조궁호(2002)에서와 같이 한 문화 내 개인들 간의 차이를 검증하는 동시에, 문화 간 허위 독특성 편향의 차이 또한 탐색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접화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1) 순간적, 상황적으로 활성화된 상호의존성, 혹은 독립성이 허위 독특성 편향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킬 것인지, (2) 개인의 기질적 문화 성향과 접화된 상호의존성, 혹은 독립성이 상호작용하여 허위 독특성 편향에 영향을 끼칠 것인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문화 접화

문화 접화(culture priming)는 문화가 가치, 규범, 신념, 태도, 목표, 인지 양식 등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법으로 주목받아 왔다(Oyserman & Lee, 2007, 2008). 접화 기법은 연구참가자들로 하여금 문화와 관련된 특정 내용이나 목표, 혹은 인지 양식 등에 일시적으로 주의를 두게 함으로써 사회들(예컨대, 한국과 미국) 간의 차이를 실험적으로 모사할 수 있도록 한다. 자기개념의 독립적 측면이나 상호의존적 측면을 접화한 후 나타나는 반응을 기존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결과나 기존 연구를 기초로 수

1) 조궁호의 연구는 기존 연구를 통하여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사회에서 각각 중요하게 간주된다고 밝혀진 특질들을 사용하였으며, 이 특질들이 연구참가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접적으로 측정하지는 않았다.

립된 가설과 비교함으로써 서로 다른 문화 맥락에 속한 사람들 간의 심리적 차이가 실제로 접화된 문화 요인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 사회와 연관된 효과가 접화 조변을 통하여 다른 사회에서도 일어나도록 만들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예컨대, 자기의 독립적인 측면을 접화하면 한국인들도 미국인들과 비슷한 수준의 분석적 사고를 보일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따르면, 독립성이 활성화되었을 때와 상호의존성이 활성화되었을 때 판단이나 행동 등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문화의 영향을 연구할 수 있다. 만약 여러 비교 문화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자기개념, 대인관계, 인지 양식과 과정 등에서의 차이가 정말로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러한 차이는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상황적으로 활성화되었을 때 더욱 강하게 나타나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무선적으로 일부 연구참가자들을 독립성을 활성화하는 조건에 할당하고 나머지 연구참가자들을 상호의존성을 활성화하는 조건에 할당한 후, 두 집단이 비교 문화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은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Oyserman & Lee, 2008).

본 연구에서는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을 접화하기 위하여 대명사 탐지 과제를 사용하였다. 이 과제는 짧은 단락의 글에 포함된 일인칭 단수형 대명사들(“나” 접화조건), 혹은 일인칭 복수형 대명사들(“우리” 접화조건)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로 표시하는 과제이다. Brewer와 Gardner(1996)가 최초로 고안한 과제에서는 일인칭 복수형인 “we”와 삼인칭 복수형인 “they”가 사용되었으나, 이후 Gardner, Gabriel과 Lee(1999)는 “I” (또한 “me”와 “my”도 포함)와 “we”(또한 “us”와 “ours”도 포함)에 초점을 맞추도록 과제를 수정하였다. “나”와 “우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각각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을 활성화하여 가치와 인과귀인(Gardner et al., 1999), 인지 양식(Haberstroh, Oyserman, Schwarz, Kuhnen, & Ji, 2002; Kuhnen & Oyserman, 2002; Oyserman, Sorensen, Reber, & Chen, 2009)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제는 Cha(2006)에 의하여 한국어로 번역 및 타당화되었다.

연구 목표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표들이 있었다. 첫째, 특질의 중요도가 허위 독특성 편향의 문화차, 혹은 개인차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에게 동양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혹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특질들과 서양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혹은 집단주의 성향이 약한 사람들)이 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특질들을 제시하고, 이 특질들을 준거로 삼아 사회비교 판단을 내리도록 하였다. 또한 각 특질을 연구참가자 개인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평정하도록 하고, 연구참가자들의 개인주의 성향과 집단주의 성향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의 두 번째 목표는 문화와 허위 독특성 편향에 관한 연구를 확장하여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의 접화가 허위 독특성 편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국인들에게는 대명사 탐지를 통한 문화 접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첫째, 한국어 포함 동아시아 언어에서는 문장의 인칭대명사가 탈락되는 경우가 빈번하여(Kashima & Kashima, 1998, 2003) 영어로 개발된 원래의 자극을 번역하여 사용할 경우 표현이 자연스럽지 못하리라는 것이다(김정식, 송유진, 이성수 등, 2008). 그러나 Cha(2006)는 일련의 실험들에서 한국어로 구성된 대명사 탐지 과제를 사용하여 문화 성향을 접화하고, 이것이 후속 인지 과제 수행에 가설과 일관된 방향의 영향을 끼침을 보였다. 둘째, 한국어에서는 일인칭 단수형 대명사와 복수형 대명사를 혼용하는 경향이 있어 대명사 탐지를 통한 접화 효과가 미약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Na와 Choi(2009)는 복수형 소유격 인칭대명사인 “우리의”를 단수형인 “나의”와 혼용하는 경향은 한국인들 중에서도 집단주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사람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보였다. 이는 한국인들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일인칭 단수형 인칭대명사의 사용은 개인주의적인 성향과, 일인칭 복수형 인칭대명사의 사용은 집단주의적 성향과 연관됨을 시사한다. 한국인 표본을 대상으로 “나”와 “우리” 접화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김정식과 동료들(2008), Cha(2006)와 Oyserman과 동료들(2009)에 의한 연구들을 제외하면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드물어 효과의 방향에 대한 선행적 가설을 세우는 것이 어려웠다.²⁾ 그러나 문화 접화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 기초하여, “나” 접화를 통하여 독립성이 활성화되면 허위 독특성 편향이 증가하고, “우리” 접화를 통하여 상호의존성이 활성화되면 편향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방 법

연구참가자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학부생들 72명(남자 36명, 여자 35명, 성별 명시하지 않음 1명; 연령 평균 = 21.07세, 표준편차 = 1.64)과 미국 중서부 소재 주립대학의 학부생들 81명(남자 28명, 여자 53명; 연령 평균 = 18.63세, 표준편차 = .74)이 수업 이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측정도구

사회비교 질문지

사회비교 시 허위 독특성 편향이 나타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문헌(Park, Stanik, & Ybarra, 2011; Sedikides et al., 2003)으로부터 일련의 긍정적인 특질 형용사들을 선정하였다. 이 형용사들 중 절반은 독립적인 성향을(경쟁적인, 리더쉽 있는, 목표 의식이 있는, 개성 있는, 독립적인, 박식한, 부지런한, 자유로운, 독창적인, 자립심 있는, 자신감 있는), 나머지 절반은 상호의존적인 성향(남의 말을 경청하는, 공손한, 호감이 가는, 성실한, 타협을 쉽게 하는, 협조적인, 자기를 희생하는, 호의적인, 신뢰할 만한, 예의 바른, 인내심 있는)을 나타내는 것들이었다. 이 특질 형용사들은 모든 연구참가자들에게 하나의 무작위 순서로 제시되

었다. 연구참가자들은 자신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같은 학년 학생들 중 몇 퍼센트가 각각의 특질을 자신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을지 추정하고, 자신의 생각을 10% 간격으로 나뉜 0%에서 100%까지의 척도를 이용하여 표시하였다. 이 추정치가 통계적 중간점(statistical midpoint)인 50보다 유의미하게 작을 때 동년배와 견주어 자신이 긍정적인 특질들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허위 독특성 편향을 보이는 것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참가자들에게 제시된 질문은 아래와 같았다:

귀하와 비교하였을 때 귀하와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의 학생들 중 몇 퍼센트가 아래와 같은 것(예: 귀하보다 더 경쟁적인 사람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척도에서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반영하는 퍼센티지를 찾아 동그라미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특질 중요도 질문지

사회비교를 위하여 사용한 특질들을 다시 한 번 제시하고, 각각의 특질이 연구참가자 개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9점 척도를 이용하여 평정하게 하였다(1: 전혀 중요하지 않다, 9: 매우 중요하다).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척도

(individualism-collectivism scale; INDCOL)

Hui(1988)가 개발한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척도(INDCOL)를 사용하여 개인주의 성향보다 집단주의 성향이 두드러지는 정도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측정하였다. INDCOL에는 집단주의 성향을 나타내는 17개의 문항들(예: “내가 속한 집단과 조화를 이루는 일은 나에게 중요하다”)과 개인주의 성향을 반영하는 15개의 문항들(예: “일에 있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참가자들은 각각의 문항을 읽고 그 내용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9점 척도를 이용하여 응답하였다(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9: 전적으로 동의한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에 대한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는 한국인 연구참가자들 사이에서 각각 .75와 .80이었으며, 미국인 연구참가자들 사이에서는 각각 .80과 .75

2) 김정식 등(2008)의 연구는 Gardner 등(1999)의 조변 방식을 변형하여 문화적 특성을 함축하는 여러 단어들을 읽고 재인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였다. Hui의 제안에 따라 각 연구참가자의 집단주의 성향과 개인주의 성향 점수들을 산출하기 위하여 해당 척도 문항들에 대한 반응들을 합산하였고, 집단주의 점수에서 개인주의 점수를 빼 각 개인이 개인주의 성향에 비하여 집단주의 성향을 얼마나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를 만들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주의 성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집단주의 성향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³⁾

측정도구의 번역

모든 측정도구는 먼저 영문으로 작성되었다. 그 후 영어와 한국어에 능숙한 두 명의 이중언어자들이 측정도구를 각각 한국어로 번역하고 영문으로 역번역(back-translation)하였다. 역번역된 영문판을 원본과 비교하여 둘 간에 의미상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설계 및 절차

매 실험 회기는 한 명에서 여섯 명까지의 소집단으로 진행되었다.⁴⁾ 연구참가자들이 실험실에 도착하였을

때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 다른 연구참가자들로 인한 주의 분산을 막기 위하여 한 명씩 칸막이로 분리된 공간에 앉도록 하였다. 연구참가자들이 솔직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실험 회기가 시작될 때 모든 응답에 대하여 익명성이 보장됨을 알려주었다. 이후 연구참가자들을 세 실험조건들 중 하나에 무선적으로 할당하였다.

본 연구에는 자기개념 점화(self-construal priming) 조건의 유무 및 점화되는 자기개념의 내용에 따라 구분되는 세 가지 실험조건들, 즉 “나” 점화조건과 “우리” 점화조건, 그리고 점화없는 통제조건이 있었다. 점화조건의 연구참가자들에게는 두 연구팀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두 가지 서로 관련 없는 연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연구는 언어 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이 연구를 위해서는 대명사 탐지 과제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연구참가자들에게 제시한 지시문은 다음과 같았다:

이제 제시될 부분은 언어심리학에 관한 연구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명사의 탐지 및 이것이 가독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 제시될 문단을 주의 깊게 읽어주시고, 여러분께서 하실 일은 문단에 나오는 모든 인칭대명사가 들어간 어절을 찾아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명사는 단수(예: 그가, 그녀는, 나를, 너의 등)이거나 복수(예: 우리가, 저희는, 너희를, 그들의 등)일 수 있습니다. 제시된 문단에 나와 있는 인칭대명사가 들어간 모든 어절을 찾아 동그라미를 쳐 주십시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점화조건의 연구참가자들에게는 ‘도시로 떠난 여행’에 관한 한 단락의 글을 제시하였다(Brewer & Gardner, 1996; Cha, 2006; Gardner et al., 1999). 연구참가자들은 이 글을 읽고 그 속에 포함된 모든 일인칭 대명사들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였다. “나” 점화조건에서 대명사들은 모두 단수형이었으며, “우리” 점화조건에서 대명사들은 모두 복수형이었다. 구체적으로, 연구

3)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두 개의 독립된 차원으로 간주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차이 점수의 사용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성향이 모두 높은 사람들로부터 다 낮은 사람들을 변별해내지 못하는 제한점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차이 점수를 사용하는 것은 사람들의 실제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이점을 갖는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대개 집단주의적인 행동(예: 다수가 찬성하는 입장을 수용하기)과 개인주의적인 행동(예: 다른 집단원들과는 다른 견해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을 고수하기) 중 양자택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강한 집단주의적, 혹은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졌는지 여부이다(Kitayama et al., 2009).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간의 차이 점수를 산출하고, 이 점수를 한 개인이 개인주의 성향에 비하여 얼마나 더 두드러진 집단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였다.

4) 매 실험 회기에 참여한 연구참가자들의 수가 실험조건에 따라 연구참가자들의 반응에 차별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매 회기당 참여한 연구참가자들의 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사전 분석에서 회기당 연구참가자 수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요인은 본 분석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참가자들에게 주어진 글은 아래와 같았다:

나는[우리는] 그 도시에 자주 간다. 높게 치솟은 건물들이 나의[우리의] 시야에 들어오면 설레임으로 내[우리] 마음 속은 충만해진다. 나는[우리는] 이 도시의 매력 그 어느 하나도 나를[우리]를 지나쳐 가지 않도록, 내[우리] 자신을 풀어놓고 도시의 구석 구석을 살펴본다. 내[우리의] 목소리는 대기와 거리를 가득 메운다. 나는[우리는] 모든 곳을 둘러 보고 윈도우 쇼핑을 하며, 내가[우리가] 가는 곳 어디서나 보이는 수백 개의 유리창 유리 위로 비친 나의[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우리] 자신을 돌아본다. 밤이 내려 앉고 내가[우리가] 아쉬움에 떠나기를 망설일 때면, 이 도시에서의 나의[우리의] 시간도 점점 끝나간다. 마침내 내가[우리가] 돌아가야만 할 시간이 되면, 나는[우리는] 곧 내가[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임을 믿고 도시를 떠난다. 이 도시는 나의[우리의] 것이다. (“우리” 점화조건에서는 [] 안과 같은 일인칭 복수형 대명사들이 제시되었다.)

통제조건의 연구참가자들은 이와 같은 단어 탐지 과제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후 연구참가자들은 사회비교 질문지, 특질 중요도 질문지,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척도의 순서로 연구과제를 작성하고, 성별과 연령을 포함한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제공하였다. 실험 회기 종료 후 연구에 대한 의문이 있는지 묻고,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결 과

대명사 탐지 과제를 작성하지 않은 한 명의 한국인 연구참가자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집단주의 성향

집단주의 성향의 문화차를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인 연구참가자들과 미국인 연구참가자들의 집단주의-개인주의 점수(집단주의 점수에서 개인주의 점수를 뺀 값)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한국인들($M = 10.03$,

$SD = 16.75$)과 미국인들($M = 12.86$, $SD = 17.65$)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t(150) = 1.01$, ns ⁵⁾

허위 독특성 편향

본 분석에 앞서 문화 집단별로 독립적 특질들과 상호의존적 특질들에 관한 사회비교 평정치들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독립적 및 상호의존적 특질들에 관한 사회비교 평정치들의 내적합치도는 한국인 연구참가자들 사이에서 각각 .80과 .84, 미국인 연구참가자들 사이에서는 각각 .85와 .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참가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질을 기준으로 삼았는가와 관계없이 각 특질 영역 내에서 유사한 수준으로 사회비교 판단을 하였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각 영역의 사회비교 평정치들을 평균하여 독립성에 관한 사회비교 점수와 상호의존성에 관한 사회비교 점수를 산출하였다(이 사회비교 점수 값들이 낮을수록 자신이 독특하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것이다). 이 점수들에 대하여 연구참가자 내 요인인 특질 영역과 연속 변수인 집단주의-개인주의 점수를 독립 변수로 포함시킨 3(실험조건: “나” 점화조건 vs. “우리” 점화조건 vs. 점화없는 통제조건) X 2(문화: 한국 vs. 미국) X 연속 변수(집단주의-개인주의) X 2(특질 영역: 독립성 vs. 상호의존성) mixed ANOVA를 실시하였다.

먼저 자기고양 편향을 다룬 기존 비교 문화 연구들과 일관되게 미국인들($M = 32.00$, $SD = 11.33$)이 한국인들($M = 47.99$, $SD = 10.05$)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허위 독특성 편향을 강하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140) = 54.31$, $p < .001$, $\eta_p^2 = .28$. 미국인들의 평정

5) 선행 연구들로부터 미루어 보아 예상할 수 있었던 집단주의 성향의 문화차가 본 연구에서 관찰되지 않은 것은 의문점으로 남는다. 이는 비교 문화 연구에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태도 등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할 때의 반응 편향들(response biases)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Heine, Lehman, Peng, & Greenholtz, 2002; Peng, Nisbett, & Wong, 1997). 추후 연구에서는 문화 성향 측정 시 참조 집단(reference group)을 명시하거나, 항목들이 보다 구체적, 행동적으로 기술된 척도들을 사용하는 등 방법론적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치 평균은 척도의 중간점, 즉 동년배들과 비교하여 자신이 우월하지도 열등하지도 않은 평균임을 의미하는 값인 50보다 유의미하게 작았던(즉, 유의미한 허위 독특성 편향을 보였던) 반면, 한국인들의 평정치 평균은 척도의 중간점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각각 $t(80) = 14.30, p < .001$ 과 $t(70) = 1.68, p = .10$. 그러나 문화와 특질 영역 간 유의미한 상호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F(1, 140) = .13, n.s.$ 즉, 독립성 영역 ($M_{미국인} = 35.93, SD_{미국인} = 13.42$ vs. $M_{한국인} = 52.52, SD_{한국인} = 12.48$)에서뿐만 아니라 상호의존성 영역 ($M_{미국인} = 28.06, SD_{미국인} = 11.81$ vs. $M_{한국인} = 43.47, SD_{한국인} = 11.58$)에서도 전반적으로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에 비하여 허위 독특성 편향을 강하게 보였다.

둘째, 허위 독특성 편향의 정도는 특질 영역에 따라 서로 달라 나타났다, $F(1, 140) = 24.72, p < .001, \eta_p^2 = .15$. 선행 연구들은 서구인들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인들, 혹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도 상호의존적 특질 영역에서는 자기고양 편향을 보인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e.g., Kurman, 2001; Sedikides et al., 2003). 그러므로 문화에 걸쳐 특질 영역 간 평균 수준을 비교한다면, 독립적 특질 영역에서보다 상호의존적 특질 영역에서 편향이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예상과 일관되게 연구참가자들은 독립적 특질들 ($M = 43.68, SD = 15.38$)에 관해서보다 상호의존적 특질들 ($M = 35.26, SD = 13.99$)에 관하여 허위 독특성 편향을 더 강하게 보였다. 이와 같은 특질 영역의 주효과와 더불어 특질 영역과 집단주의 성향 간의 상호작용도 관찰되었다, $F(1, 140) = 17.39, p < .001, \eta_p^2 = .11$. 이 상호작용을 자세하게 검증하고 시각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각 문화 집단 내에서 중앙값(median)을 기준으로 집단주의-개인주의 점수 상위 자들과 하위자들을 구분하였다.⁶⁾ 그림 1은 집단주의-개인주의 점수 상위 50% 집단과 하위 50% 집단의 허위 독특성 편향을 특질 영역별 개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성 영역에서

집단주의-개인주의 점수 하위자들은 상위자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t(150) = 3.31, p = .001$. 집단주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 ($M = 39.68, SD = 15.39$)은 독립적인 특질들에 관하여 허위 독특성 편향을 보였던 반면, 집단주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사람들 ($M = 47.67, SD = 14.39$)은 이와 같은 편향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상호의존성 영역에서는 집단주의-개인주의 점수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t(150) = 1.18, p > .2$. 즉, 상호의존적인 특질들에 관해서는 집단주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사람들 ($M = 33.92, SD = 13.39$)도 집단주의 성향이 약한 사람들 ($M = 36.59, SD = 14.52$)만큼의 허위 독특성 편향을 보였다.⁷⁾

셋째, 예상과는 달리 실험조건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F(2, 140) = .19, n.s.$ 그러나 실험조건과 집단주의-개인주의 간에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 $F(2, 140) = 3.23, p < .05, \eta_p^2 = .04$. 그림 2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단주의-개인주의 점수 상위 50% 집단과 하위 50% 집단의 허위 독특성 편향을 실험조건에 따라 개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구체적으로, “나” 점화조건에서는 집단주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 ($M = 34.52, SD = 13.74$)이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 ($M = 43.03, SD = 13.41$)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의 허위 독특성 편향을 보였다, $t(48) = 2.19, p < .05$. 반대로 “우리” 점화조건에서는 집단주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사람들 ($M = 35.24, SD = 13.53$)이 약한 사람들 ($M = 39.46, SD = 14.16$)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의 허위 독특성 편향을 보이는 경향이 관찰되었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t(49) = 1.06, p > .2$. 통제조건에서는 집단주의-개인주의 점수에 따른 허위 독특성 편향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49) = .85, n.s.$

6) 집단주의-개인주의 점수에 있어 문화 간 차이가 없었으므로, 한국인과 미국인의 자료 전체에 대하여 중앙값 분할(median split)을 한 결과도 본 논문에 보고된 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7) 문화와 특질 영역, 그리고 집단주의 성향 사이의 삼원 상호작용 역시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140) = 1.72, p > .15$. 문화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특질 영역과 집단주의 성향의 상호작용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F(1, 65) = 11.89, p = .001, \eta_p^2 = .16$ 과 $F(1, 75) = 5.21, p = .025, \eta_p^2 =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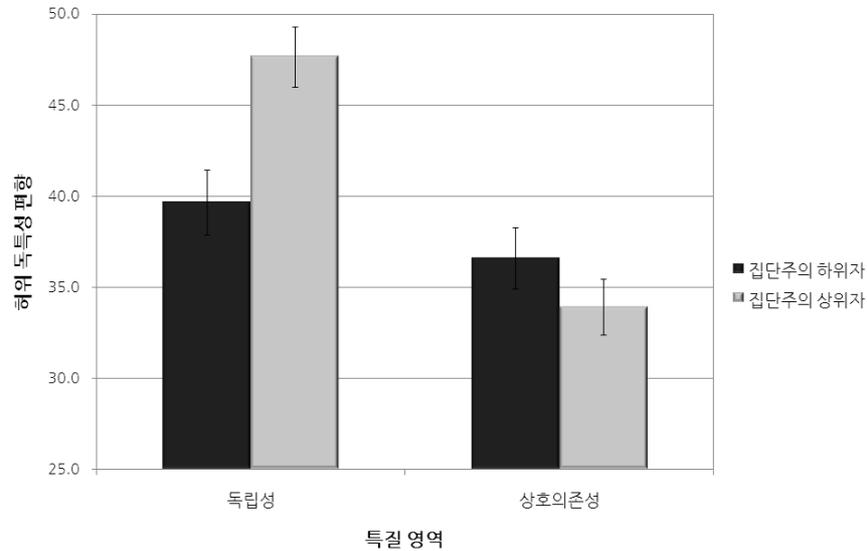


그림 1. 특질 영역과 집단주의-개인주의 수준에 따른 허위 독특성 편향의 차이

다음으로, 점화 조건의 효과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집단주의 성향 수준에 따라 실험조건들 간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집단주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사람들의 경우 “우리” 점화조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허위 독특성 편향을 보였다. 실제로, “우리” 점화조건의 연구참가자들은 통제조건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편향을 보였고, 또한 “우리” 점화조건에서 나타난 편향의 수준은 “나” 점화조건에서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각각 $F(1, 73) = 3.95, p = .05$ 와 $F(1, 73) = 4.64, p < .05$. 그러나 “나” 점화조건의 연구참가자들은 통제조건의 연구참가들과 편향을 보이는 정도가 다르지 않았다, $F(1, 73) = .02, n.s$. 마지막으로, “나” 점화조건, “우리” 점화조건, 통제조건에서 나타난 허위 독특성 편향에 대하여 (1 -2 1)의 대비 계수를 적용한 대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리” 점화조건은 나머지 두 조건들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F(1, 73) = 5.41, p < .025$. 종합하건대, 지금까지의 결과들은 집단주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사람들에게 있어 “우리” 점화는 허위 독특성 편향을 강화하였지만, “나” 점화는 허위 독특성 편향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반면, 집단주의 성향이 상대

적으로 약한 사람들의 경우 “나” 점화조건에서 허위 독특성 편향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나” 점화조건과 통제조건, “나” 점화조건과 “우리” 점화조건 사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 각각 $F(1, 73) = 1.50$ 과 $F(1, 73) = 1.57, ps > .2$. 마지막으로, 집단주의 성향이 약한 사람들이 “나” 점화조건, “우리” 점화조건, 통제조건에서 나타난 허위 독특성 편향에 대하여 (-2 1 1)의 대비 계수를 적용한 대비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나” 점화조건과 다른 두 조건들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F(1, 73) = 1.96, p = .17$.⁸⁾

요컨대, “나” 점화조건에서는 가설과 일관되게 집단주의 성향의 수준에 따른 허위 독특성 편향의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실험조건들 간 비교를 통하여 “나” 점화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의 허위 독특성 편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우리” 점화는 이들의 허위 독특성 편향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종합하건대, 이러한 결과는 집단주의 성

8) 실험조건, 집단주의-개인주의, 특질 영역 간의 삼원 상호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F(2, 140) = .03, n.s$. 이러한 결과는 점화 조건과 집단주의-개인주의 간의 상호작용의 효과가 특질 영역에 따라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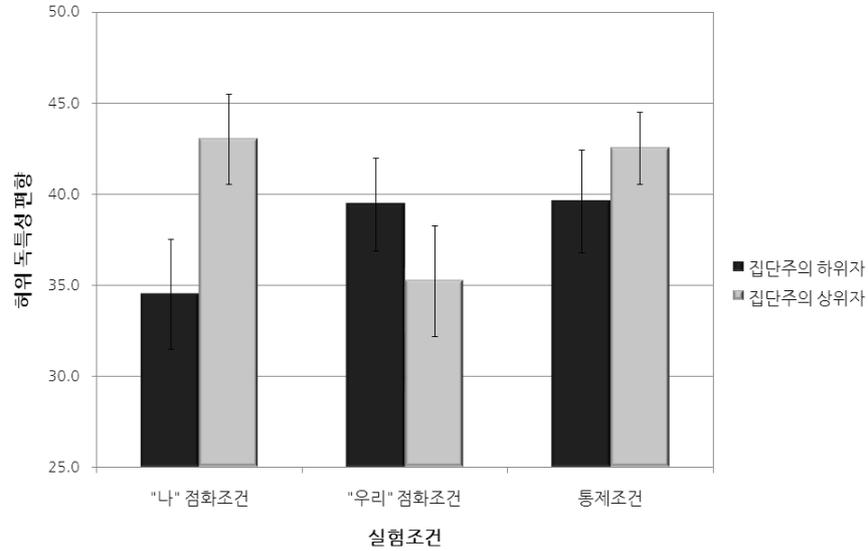


그림 2. 실험조건과 집단주의-개인주의 수준에 따른 허위 독특성 편향의 차이

향의 개인차와 관계없이 독립적 자기개념을 점화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허위 독특성 편향을 증가시키고,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을 점화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허위 독특성 편향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오히려 본 연구의 결과는 각 개인의 우세한 자기개념을 점화시키는 것(즉, 집단주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독립성을 점화하고, 집단주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사람들에게 상호의존성을 점화하는 것)이 허위 독특성 편향을 강화하였음을 시사한다. 이에 관해서는 논의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특질 중요도

본 분석에 앞서 문화 집단별로 독립적 특질들과 상호의존적 특질들에 관한 중요도 평정치들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독립적 및 상호의존적 특질들의 중요도 평정치들 간의 내적합치도는 한국인 연구참가자들 사이에서 각각 .79와 .85, 미국인 연구참가자들 사이에서 각각 .77과 .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각 특질 영역 내의 평정치들이 높은 수준의 내적합치도를 보임에 따라 각 영역의 중요도 평정치들을 평균하여 독립적 특질의 중요도 점수와 상호의존적 특질의 중요

도 점수를 산출하였다. 이 점수들에 대하여 연구참가자 내 요인인 특질 영역과 연속 변수인 집단주의-개인주의 점수를 독립 변수로 포함시킨 3(실험조건: "나" 점화조건 vs. "우리" 점화조건 vs. 점화없는 통제조건) X 2(문화: 한국 vs. 미국) X 연속 변수(집단주의-개인주의) X 2(특질 영역: 독립성 vs. 상호의존성) mixed ANOVA를 실시하였다.⁹⁾

먼저, 전반적으로 독립성 관련 특질들($M = 6.81, SD = .88$)이 상호의존성 관련 특질들($M = 6.77, SD = .94$)에 비하여 더 중요하다고 평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F(1, 140) = 16.36, p < .001, \eta_p^2 = .11$.¹⁰⁾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 특질 영역과 집단주의 성향 간의 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 $F(1, 140) = 46.26, p < .001, \eta_p^2 = .25$. 그림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집단주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독립성 관련 특질들($M = 7.00, SD = .87$)이 상호의존성 관련 특질들($M = 6.57,$

9) 특질 중요도 평정치들을 각 연구참가자 내에서 표준화(ipsatize)한 점수들로 분석하였을 때에도 본문에 기술된 바와 일관된 결과가 관찰되었다.

10) 특질 중요도 평정과 관련하여 문화 간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F(1, 140) = 2.21, p > .10$. 또한, 특질 영역과 문화 간의 상호작용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 $F(1, 140) = 2.59, p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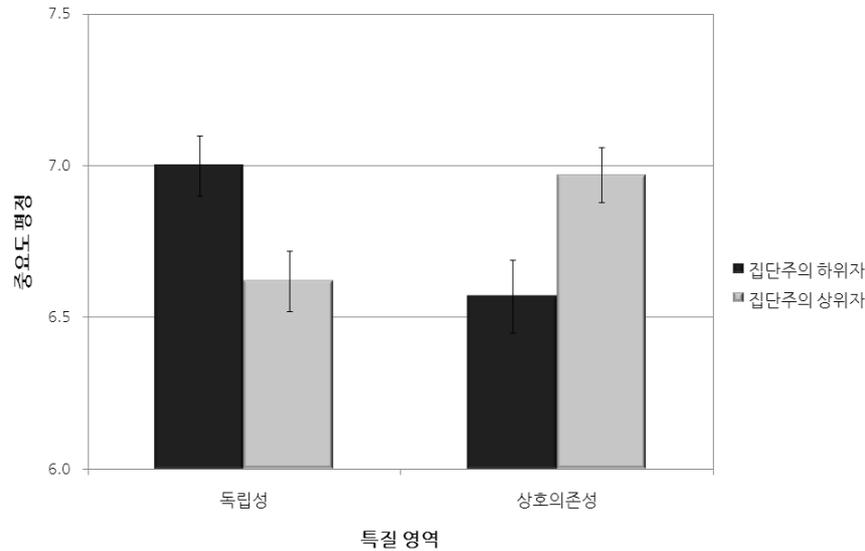


그림 3. 특질 영역과 집단주의-개인주의 수준에 따른 특질 중요도 평정의 차이

$SD = 1.04$)보다 자신에게 더 중요하다고 평정하였다, $t(75) = 4.23, p < .001$. 이와는 반대로, 집단주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독립성 관련 특질들($M = 6.62, SD = .87$)에 비하여 상호의존성 관련 특질들($M = 6.97, SD = .80$)이 자신에게 더 중요하다고 평정하였다, $t(75) = 3.30, p < .005$.

집단주의 성향, 허위 독특성 편향, 특질 중요도 간의 관계

집단주의 성향, 독립적 특질들과 상호의존적 특질들에 관한 허위 독특성 편향, 그리고 독립적 및 상호의존적 특질들의 지각된 중요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 그 결과, 모든 측정치들 간에 가설과 일치하는 방향의 상관이 관찰되었다.¹¹⁾ 먼저 집단주의 성향과 허위 독특성 편향의 관계를 살펴보면,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개인주의 성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독립성에 관한 허위 독특성 편향을 덜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r = .11, p = .20$). 반면,

상대적으로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상호의존성에 관한 허위 독특성 편향은 강하게 보임이 관찰되었다($r = -.20, p < .025$). 이는 집단주의적인 사람일수록 자신만큼 긍정적인 상호의존적 특질들을 보유한 동년배의 수가 적을 것이라고 추정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독립적 특질들은 덜 중요하게, 상호의존적 특질들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r = -.22, p < .01$ 과 $r = .34, p < .001$). 마지막으로, 독립적 특질들을 중요하게 간주할수록 독립성에 관한 허위 독특성 편향을 강하게 보이며, 상호의존적 특질들을 중요하게 간주할수록 상호의존성에 관한 허위 독특성 편향을 강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r = -.25, p < .005$ 와 $r = -.47, p < .001$).

다음으로, 상관 분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집단주의 성향이 특질 중요도를 매개로 하여 허위 독특성 편향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될 때 집단주의 성향이 허위 독특성 편향에 미치는 영향을 특질 중요도가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1) 상대적인 집단주의 성향(즉, 집단주의 점수-개인주의 점수)이 허위 독특성 편향의 정도를 예측한다, (2) 집단주의 성향이 지각된 특질 중요도를 예측한다, (3)

11) 각 문화 집단별로 실시한 상관 분석에서도 동일한 패턴의 결과가 관찰되었다.

표 1.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점수, 허위 독특성 편향, 특질 중요도 평정 간의 상관

	COL-IND	FUB_IND	FUB_INT	IMP_IND
FUB_IND	.11			
FUB_INT	-.20*	.66****		
IMP_IND	-.22**	-.25***	-.05	
IMP_INT	.34****	-.22**	-.47****	.42****

주 1. COL-IND = 집단주의 점수에서 개인주의 점수를 뺀 것으로서 값이 클수록 집단주의 성향이 강함을 나타낸다; FUB_IND = 독립성에 관한 허위 독특성 편향, FUB_INT = 상호의존성에 관한 허위 독특성 편향 점수로서 값이 작을수록 허위 독특성 편향이 더 강한 것을 의미한다; IMP_IND = 독립성 특질 중요도 평정 평균, IMP_INT = 상호의존성 특질 중요도 평정 평균으로서 값이 클수록 중요도가 더 높게 지각되었음을 의미한다.

주 2. * $p < .025$; ** $p < .01$; *** $p < .005$; **** $p < .001$.

특질 중요도의 효과를 통제하였을 때 집단주의 성향이 허위 독특성 편향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한다(Baron & Kenny, 1986). 이미 본문에 보고된 바와 같이 상호의존적 특질들에 관한 허위 독특성 편향을 설명하는 데 있어 위의 (1)과 (2)의 요인들은 충족되었다. 즉, 상대적 집단주의 성향이 상호의존적 특질들에 관한 허위 독특성 편향을 예측하였으며, 상대적 집단주의 성향은 또한 상호의존적 특질들의 중요도를 예측하였다, 각각 $\beta = -.20, p < .025$ 와 $\beta = .34, p < .001$. (3)의 요인이 충족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상호의존성에 관한 허위 독특성 편향을 준거 변수로, 집단주의 성향과 상호의

존적 특질의 중요도를 예측 변수로 하는 중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특질 중요도가 모형에 포함되었을 때, 집단주의 성향이 허위 독특성 편향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되었다, $\beta = -.05, ns$; Sobel(1982)'s $z = 2.27, p < .025$ (그림 4 참조). 이러한 결과는 집단주의 성향이 상호의존성에 관한 허위 독특성 편향에 미치는 영향을 상호의존적 특질의 지각된 중요도가 매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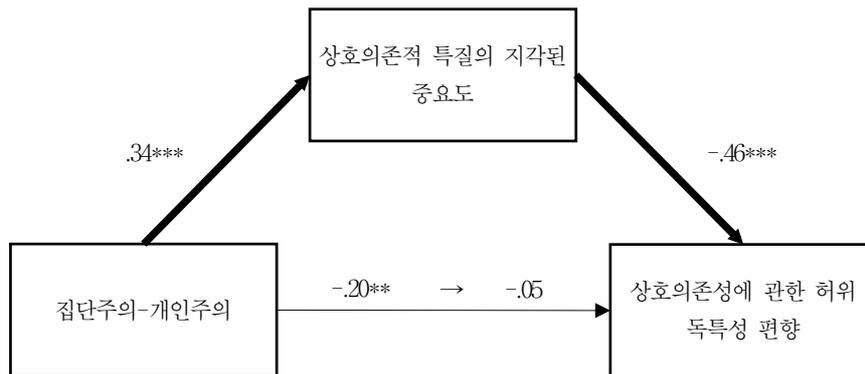


그림 4. 집단주의 성향이 상호의존적 특질들에 관한 허위 독특성 편향을 예측하는 데 있어 상호의존적 특질 중요도의 매개 효과: 표준화된 회귀 계수들이 제시되었다. 굵은 화살표들은 최종 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던 경로들을 나타낸다. 가장 아래 경로에서 왼편에 제시된 숫자는 매개 변수를 포함시키기 전의 표준화 회귀 계수이며, 오른편 숫자는 최종 모형에서 도출된 표준화 회귀 계수를 나타낸다; ** $p < .025$, *** $p < .001$.

논 의

이 연구의 첫 번째 목표는 특질 중요도가 사회비교에서 나타나는 허위 독특성 편향의 문화차, 혹은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데 있었다. 두 번째 목표는 독립성, 혹은 상호의존성을 점화하는 것이 허위 독특성 편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 목표들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들보다 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허위 독특성 편향을 더 강하게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허위 독특성 편향은 독립성과 관련된 특질 영역에서보다 상호의존성과 관련된 특질 영역에서 두드러졌다. 허위 독특성 편향의 문화차는 특질 영역에 따라 다른 수준으로 나타나는 않았으나, 위에 기술한 특질 영역의 주효과와 더불어 특질 영역과 개인의 집단주의 성향 간의 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집단주의 성향 수준에 따른 허위 독특성 편향의 차이, 즉 집단주의 성향이 약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보다 자신의 독특성을 과대 지각하는 것과 같은 차이는 독립성 특질 영역에서만 나타났다. 상호의존성 특질 영역에서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도 집단주의 성향이 약한 사람들과 같은 정도의 허위 독특성 편향을 보였다. 이는 일찍이 조공호(2002)가 한국인들 중 개인중심성향자와 집단중심성향자를 비교하여 관찰한 바와 일관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전반적으로 미국인들이 한국인들에 비하여 강한 허위 독특성 편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은 특질 영역과 집단주의 성향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특질 영역과 개인의 집단주의 성향 간의 상호작용은 허위 독특성 편향에서뿐만 아니라 특질 중요도 평정에서도 나타났다. 즉, 집단주의 성향이 약한 사람들은 독립성 관련 특질들이 상호의존성 관련 특질들보다 자신에게 더 중요하다고 평정하였으나,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반대로 독립성 관련 특질들에 비하여 상호의존성 관련 특질들이 자신에게 더 중요하다고 평정하였다. 또한, 상관 분석을 통하여 개인의 집단주의 성향과 특질 영역별 허위 독특성 편향 및 특질 영역별

중요도 간에 예상했던 바와 일관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독립적 특질들에 관해서는 자신의 독특성을 약하게 지각하는 경향을 보이나, 상호의존적 특질들에 관해서는 자신의 독특성을 유의미하게 과대 지각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독립성 관련 특질들은 덜 중요시하고 상호의존성 관련 특질들은 더 중요시함이 관찰되었다. 이와 더불어, 독립성과 상호의존성 관련 특질들을 중요시하는 정도는 각 영역에서의 허위 독특성 편향과 정적으로 상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매개 분석을 통하여 개인의 집단주의 성향이 개인이 지각한 상호의존적 특질의 중요도를 매개로 하여 허위 독특성 편향에 영향을 줌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집단주의적인 사람들일수록 상호의존적 특질들이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여기며, 이로 인하여 상호의존적 특질들에 관한 자신의 독특성을 과대 지각한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문화 맥락마다, 혹은 문화 성향에 따라 중요하게 여기는 특질이 다르며, 이러한 차이가 자기고양 편향의 문화차, 혹은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다는 최근의 문화심리학 연구 결과들(Kurman, 2001; Sedikides et al., 2003)과 맥을 같이 한다.

둘째, 자기의 독립적 측면을 활성화시키는 “나” 점화조건에서는 점화없는 통제조건에서보다 허위 독특성 편향이 증가하고, 자기의 상호의존적 측면을 활성화시키는 “우리” 점화조건에서는 상대적으로 편향이 감소하는 것과 같은 실험조건의 주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험조건과 개인의 집단주의 성향이 함께 고려되었을 때 허위 독특성 편향의 정도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점화조건에서는 예상했던 바와 같이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에 비하여 허위 독특성 편향을 덜 보였다. 그러나 상호의존성을 활성화시키는 “우리” 점화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의 허위 독특성 편향을 오히려 증가시켰다. 이는 점화 조변을 사용한 기존의 연구들(e.g., Gardner et al., 1999)과 다르게, 독립적 자기개념의 점화가 일률적으로 개인주의적 성향을 강화하고,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의 점화가 일률적으로 집단주의적 성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본 연구의 결과

는 개인이 본래 가지고 있는 문화 성향이 상황적으로 주어지는 점화의 방향과 일치할 때 자기고양 편향이 강해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집단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이 “우리” 점화 자극을 달리 해석하고 반응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대명사 탐지 과제를 통한 “우리” 점화 조변은 타인을 자기의 일부로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자기가 확장되도록 한다 (Gardner, Gabriel, & Hochschild, 2002). 그런데 집단주의 성향이 약한 사람들의 자기개념에 비하여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의 자기개념은 “우리”로 점화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더 크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예: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내집단원들을 자기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지각). 만약 그렇다면, “우리” 점화의 영향 하에서 사회비교 시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확장된 자기가 일반적인 동년배에 비하여 바람직한 특질들을 얼마나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추론을 아시아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혹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에게서는 자기고양 편향보다 집단고양 편향(group-serving bias)이 두드러진다는 일련의 연구 결과들(Hewstone, Bond, & Wan, 1983; Muramoto & Yamaguchi, 1997, 2003; Taylor & Jaggi, 1974)과 더불어 고려한다면,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나”로 점화되었을 때보다 “우리”로 점화되었을 때 오히려 독특성을 더 크게 지각하였다는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후 해석은 후속 연구를 통하여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개념을 점화한 후 허위 독특성 편향, 특질 중요도, 집단주의 성향을 순차적으로 측정하였다. 그러므로 점화된 자기개념이 허위 독특성 편향뿐만 아니라 특질 중요도나 집단주의 성향을 평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인의 기질적 문화 성향과 상황적으로 점화된 자기개념이 상호작용하여 허위 독특성 편향에 미치는 영향이나, 점화의 효과와는 무관하게 특질 중요도가 허위 독특성 편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특질 중요도 및 집단주의 성향 평정과 점화 조변 사이에 충

분한 시간 간격을 둘 필요가 있다. 즉, 특질 중요도와 집단주의 성향 평정이 점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별도의 실험 회기에서 측정하거나, 특질 중요도와 집단주의 성향 평정 이후 한동안 무관한 과제(filler task)를 수행하도록 한 후 자기개념 점화와 사회비교 질문지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후속 연구를 수행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견주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도 상호의존성 영역에서는 집단주의 성향이 약한 사람들과 동등한 수준의 허위 독특성 편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개인의 집단주의 성향은 지각된 특질 중요도를 매개로 하여 허위 독특성 편향에 영향을 끼침을 관찰하였다. 종합하건대, 이러한 결과들은 동아시아인들, 혹은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자기고양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입장에 반하며, 특질의 중요도에 따라 자기고양 편향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또한 본 연구는 문화 점화 절차를 통하여, 예상과는 달리 개인의 문화 성향과 점화의 방향이 일치할 때 허위 독특성 편향이 강화됨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흥미로운 연구 문제를 제기한다. 후속 연구를 통하여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가 반복 검증되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며, “우리” 점화가 한국인들의 자기개념 확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보다 면밀하게 탐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정식, 송유진, 이성수(2008). 문화점화가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 177-194.
- 조공호(2002). 문화성향과 허위적 독특성 지각 경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 91-111.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rewer, M. B., & Gardner, W. (1996). Who is this

- "We"? Levels of collective identity and self represent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83-93.
- Brown, J. D. (2003). The self-enhancement motive in collectivistic cultures: The rumors of my death have been greatly exaggerated.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4, 603-605.
- Cha, O. (2006). "I" see trees, "we" see forest: Cognitive consequences of independence vs. interdepend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 Gardner, W. L., Gabriel, S., & Lee, A. Y. (1999). "I" value freedom, but "We" value relationships: Self-construal priming mirrors cultural differences in judgment. *Psychological Science*, 10, 321-326.
- Goethals, G. R., Messick, D. M., & Allison, S. T. (1991). The uniqueness bias: Studies of constructive social comparison. In J. Suls & T. A. Wills (Eds.), *Social comparison: Contemporary theory and research*. Hillsdale, NJ: Erlbaum.
- Haberstroh, S., Oyserman, D., Schwarz, N., Kuhnen, U., & Ji, L. J. (2002). Is the interdependent self more sensitive to question context than the independent self? Self-construal and the observation of conversational norm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8, 323-329.
- Heine, S. J., & Hamamura, T. (2007). In search of East Asian self-enhance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1, 4-27.
- Heine, S. J., Kitayama, S., Lehman, D. R., Takata, T., Ide, E., Leung, C. et al. (2001). Divergent consequences of success and failure in Japan and North America: An investigation of self-improving motivations and malleable sel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599-615.
- Heine, S. J., & Lehman, D. R. (1997).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self-enhancement: An examination of group-serving bia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268-1283.
- Heine, S. J., & Lehman, D. R. (1999). Culture, self-discrepancies, and self-satisfac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 915-925.
- Heine, S. J., Lehman, D. R., Markus, H. R., & Kitayama, S. (1999). Is there a universal need for positive self-regard? *Psychological Review*, 106, 766-794.
- Heine, S. J., Lehman, D. R., Peng, K., & Greenholtz, J. (2002). What's wrong with cross-cultural comparisons of subjective Likert scales? The reference-group probl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903-918.
- Heine, S. J., Takata, T., & Lehman, D. R. (2000). Beyond self-presentation: Evidence for self-criticism among Japanes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 71-78.
- Hewstone, M., Bond, M. H., & Wan, K. C. (1983). Social facts and social attributions: The explanation of intergroup differences in Hong Kong. *Social Cognition*, 2, 142-157.
- Hui, C. H. (1988). Measurement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2, 17-36.
- Kashima, E. S., & Kashima, Y. (1998). Culture and language: The case of cultural dimensions and personal pronoun us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9, 461-486.
- Kashima, Y., & Kashima, E. S. (2003). Individualism, GNP, climate, and pronoun drop: Is individualism determined by affluence and climate, or does language use play a rol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4, 125-134.
- Kitayama, S., Park, H., Sevincer, A. T., Karasawa, M., & Uskul, A. K. (2009). A cultural task analysis of implicit independence: Comparing

- North America, Western Europe, and East Asi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 236-255.
- Kuhnen, U., & Oyserman, D. (2002). Thinking about the self influences thinking in general: Cognitive consequences of salient self-concep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8, 492-499.
- Kurman, J. (2001). Self-enhancement: Is it restricted to individualistic cultur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1705-1716.
- Markus, H. R., & Kitayama, S. (1991a). Cultural variation in self-concept. In G. R. Goethals & J. Strauss (Eds.),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on the self* (pp. 18-48). New York, NY: Springer-Verlag.
- Muramoto, Y., & Yamaguchi, S. (1997). Another type of self-serving bias: Coexistence of self-effacing and group-serving tendencies in attribution in the Japanese culture. *Japanes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7, 65-75.
- Muramoto, Y., & Yamaguchi, S. (2003). When "self-effacement" disappears: Narratives of personal and group successes depending on an ingroup relationship. *The Japanese Journal of Psychology*, 74, 253-262.
- Na, J., & Choi, I. (2009). Culture and first-person pronou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5, 1492-1499.
- Na, J., Grossmann, I., Varnum, M. E. W., Kitayama, S., Gonzalez, R., & Nisbett, R. E. (2010). Cultural differences are not always reducible to individual difference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SA*, 107, 6192-6197.
- Oyserman, D., & Lee, S. W. S. (2007). Priming "culture": Culture as situated cognition. In S. Kitayama & D. Cohen (Eds.), *Handbook of cultural psychology* (pp. 255-279). New York, NY: Guilford Press.
- Oyserman, D., & Lee, S. W. S. (2008). Does culture influence what and how we think? Effects of priming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logical Bulletin*, 134, 311-342.
- Oyserman, D., Sorensen, N., Reber, R., & Chen, S. X. (2009). Connecting and separating mind-sets: Culture as situated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 217-235.
- Park, H., Stanik, C., & Ybarra, O. (2011). *The primacy of communion in self-judgment and reputation monitoring*. Unpublished manuscript, Sungshin Women's University.
- Peng, K., Nisbett, R. E., & Wong, N. Y. C. (1997). Validity problems comparing values across cultures and possible solutions. *Psychological Methods*, 2, 329-344.
- Sedikides, C., Gaertner, L., & Toguchi, Y. (2003). Pancultural self-enhanc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60-79.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pp. 290-312). Washington, DC: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 Suls, J., Wan, C. K., & Sanders, G. S. (1988). False consensus and false uniqueness in estimating the prevalence of health-protective behavior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8, 66-79.
- Taylor, D. M., & Jaggi, V. (1974). Ethnocentrism and causal attribution in a South Indian context.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5, 162-171.

Cultural Variation in False-Uniqueness Bias: Culture and Self-Enhancement Revisited

Hyekyung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Recent research in cultural psychology challenges the notion that East Asians lack a self-enhancement motive, and argues that they do self-enhance, at least, on traits they find personally relevant and important. The present study examined if self-enhancement of East Asians (or individuals with collectivistic orientation) as opposed to Westerners (or individuals with individualistic orientation) would differ by trait domain. In addition, this study explored effects of priming independent vs.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on self-enhancement. The tendency toward self-enhancement was measured by a false-uniqueness bias (FUB). It was found that the FUB was substantially stronger for Americans than for Koreans and greater in interdependence than in independence domain. Moreover, in the interdependence domain individuals high on collectivism showed the FUB as much as individuals low on collectivism did. In addition, the perceived importance of interdependent traits mediated the FUB on these traits. Finally, the FUB was affected by self-construal priming such that the FUB became stronger when the momentary priming of self-construal was congruent with one's chronic orientation toward collectivism vs. individualism.

Keywords: false-uniqueness bias, culture, self-enhancement, self-construal priming

1차원고 접수일 : 2011년 04월 11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11년 05월 24일
게재 확정일 : 2011년 05월 25일